

전남 시·군 '케이블카 열풍' 출혈 경쟁·환경 훼손 우려

목포 유달산·진도 울돌목 올해 개통 ... 구례 지리산·담양 추월산·광주 무등산·여수 경도 추진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유달산에 이어 진도 울돌목이 올해 개통 예정이고, 구례 지리산, 담양 추월산, 광주 무등산 등 명승지도 대상지역이다. 특히 여수는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이어 경도 관광단지에도 또 다른 케이블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케이블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식된데다 빈약한 관광인프라 충족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지자체간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는 사도시설(케이블카) 5곳과 궤도시설(모노레일) 3곳이 운영 중이다. 또 올해 2곳이 개통 예정이고, 3곳은 추진 중이다.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 건설해 운영 중인 여수는 경도 관광단지에 또 하나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한다.

여수포마루가 운영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 승강장과 돌산공원 사이

1.5km 구간을 이동한다.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로 바다에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0대(5인승)와 일반 캐빈 40대(8인승) 등 총 50대가 운행 중이다. 아시아에선 홍콩·싱가폴·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바다 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다.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해남에는 두륜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다. 1.57km 구간에 정員 51명인 2기가 순환, 연간 6만명이 이용한다. 목포 부주산과 담양 추월산, 장성 백암산(백암사)에는 화물용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해남 땅끝에는 모노레일 2기가 왕복 운행하고, 순천 순천만정원에는 연간 28만명이 이용하는 관광용 모노레일이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는 오는 5월, 진도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미래에셋은 돌산과 경도를 잇는 2km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바다가 아닌 산에서도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다. 구례 지리산과 담양 추월산이

구례지역은 지난 4일 민간단체인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구례군과 인근 시·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담양군도 담양호를 사이에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하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통영·여수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여수·해남 등 인접한 곳에 비슷한 콘셉트가 난립하면서 과열 경쟁으로 수익은 나지 않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도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사업이 흥미 위주로 바뀌면서 안전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카를 친환경 방식으로 건설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상가나 우후죽순 들어서서 2차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도 걱정거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DJ센터 제2전시장, 현 센터 앞 제1주차장에 건설할 듯

광주시, 접근성·예산 우선 고려

광주시가 추진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 현재 센터의 건너편에 있는 제1주차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주차장에 건립을 추진하던 광주노인회관을 2주차장으로 옮겨 짓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광주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광주시로 돌려주는 출자반환 의

결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주차장 부지에 추진하던 광주노인회관은 2주차장 부지에 들어서게 됐다. 그동안 1주차장내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시는 현재 DJ센터 2전시장 건립 후보지로 3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제1안은 DJ센터 앞 1주차장(1만8932㎡)으로, 최저 비용에 최단시일 착공이 가능하지만 부지가 좁아 효율적 건물 설계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제2안은 1주차장에 추가부지를 포함(2만7000㎡)한 곳으로, 충분한 전시면적이 가능하지만 추가부지 매입 비용(200억원)과 토지수용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제3안은 상무골프연습장(3만4647㎡)으로 부지 활용도가 높고 상무 도심권 도보 10분 거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5·18자유

공원 일부 사용 협의가 필요하고 5·18 관련 단체의 반대 등도 넘어야 한다.

시가 2전시장 부지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과 예산을 최우선해 고려하는 만큼 1주차장이 가장 유력하다. 2전시장 선정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1안 600억원, 2안 1000억원, 3안 800억원 등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전시장은 전체 1만8000~3만㎡의 면적에 8000~1만㎡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10개,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21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2전시장 건립부지 선정 현안회의를 열고 후보지적 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내용은 검토해 조만간 2전시장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전시장 개관 시기는 2021년 하반기가 유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춘분 ... 봄비 머금은 매화



봄 비가 내린 2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만개한 매화나무 아래로 우산을 든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형배·이미선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문형배 판사



이미선 판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지명자는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지명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정부연구단 조사 결과 ... 시민 손배소에 큰 영향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으로 기록됐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이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강근 연구단장(서울대 교수)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앞서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해외조사위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PX1, PX2) 주변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그 영향을 자체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조사위는 “결론은 지열발전 주입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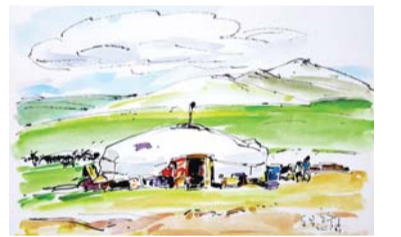
됐다”는 것이라며 “PX-2(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지진법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림편지 - 김해성 '몽골' ▶18면



KIA 임기영 무실점 선발 점검 ▶20면

광주형일자리 캠페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